

# 올해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진안군, 총 88건 선정  
1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지오파크 조성 등 64개



진안군은 지난 2일 유근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2018년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진안군은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주요사업을 공개해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지난 2일 유근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2018년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88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와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 공개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진안군 지오파크 조성사업,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증·개축, 마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64개 사업이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가야문화유산 정비사업, 웅치

전적지 발굴 조사 등 8건,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진안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등 총 11건,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진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진안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5건 등이다. 유근주 부군수는 "이번에 선정된 88개 사업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공무원의 책임과 사명감을 높일도록 해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중·고등학생 정신건강증진교육

진안군, 6월 27일까지 인터넷 중독 예방 실시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스마트폰·인터넷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고개 들고 하늘 보고'란 주제로 오는 6월 27일까지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진행한다. 8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중독의 위험을 인식시키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통해 올바른 미디어 사용 방법의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고위험군은 전문인력의 1:1 멘토링을 통해 맞춤형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의 이해, 올바른 사용방법,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뇌의 변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201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59세 이용자 중 2.4%(86만 2000명)는 고위험군, 13.8%(49만 6000명)는 잠재적 위험군이며, 또한 인터넷 과의존 실태에서는 만 3~59세 이용자 중 1.2%(48만 1000명)는 고위험군, 5.6%(220만 1000명)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성인용 영상물 구독 등으로 인해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 사고력이나 기억력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생기며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을 통해 과다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하고, 이용시간 관리법 등을 통해 자조절능력 향상과 건강한 마음·신체를 스스로 관리·유지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덕유산, 설천봉~향적봉 구간

오늘부터 탐방예약제 시행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9일부터 설천봉~향적봉구간(0.6km)을 대상으로 탐방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유산의 주봉인 설천봉~향적봉 구간은 연간 170만 명 중, 62만 명(전체 이용객 중 약 40%)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정상부 접근이 쉬워 탐방객 밀집으로 인한 아고산대 자연자원 및 핵심식지 훼손이 가중되는 구간이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에 시범운영하였던 탐방예약제를 금년에는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9일부터 내달 18일(41일간)까지 시행하고, 그중 5월 9일부터 5월 18일은 설천봉~향적봉구간이 일시 통제될 예정이며,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예약을 통해 향적봉 구간 탐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위중완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탐방예약제 운영은 개화기, 반식기를 맞은 동식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특별방역대책기간 청정지역 유지 총력

장수군은 지난달 말 구제역 및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조정 되었으나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춘 상황실을 유지하는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총력을 펼친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내 구제역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해 소, 염소 및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까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돼지에 대하여는 오는 21일까지 2차 접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AI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거래상인 등의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31일까지 전통시장 내 토종닭 중추 판매가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판매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과, AI 검사증명서, 판매승인서 등 관련 서류 보유 여부 및 정소·소독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행안부 방문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 펼쳐

장수군은 8일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을 조기 발굴하여 안동환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신청 대상은 일자리창출과 지역복지분야 3개 사업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한 지역복지회관 확충 9억원,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수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 9억원,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창업교육,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장수군 청소년 어울림센터 신축 8억원으로 총 26억원 규모이다. 안동환 부군수는 "군 발전사업과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2019년도 국가예산 3천억원 이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당신이 있어 감사해 孝"

**무주군, 어버이날 기념행사**  
관내 어르신들 4백여명 참석  
박희채씨 외 5명 효행상 수상

무주군이 8일 무주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을 비롯한 관내 어르신 등 주민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시상,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설천면 박희채(77)씨와 적상면 김성란(51)씨, 부남면 강갑순(74)씨, 무풍면 김중빈(57)씨, 무주읍 김도순(72)씨, 적상면 김현석(27)씨가 효행상을 수상했으며 무주읍 김임수(50)씨가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했다. 무주읍 이애경(39)씨, 부남면 박홍순(60)씨가 노인복지 기여자로 선정돼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무주군은 8일 무주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관내 유아들과 초·중·고등학생, 일반부 등 266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던 효문화 공모전에서는 중앙초 4년 황규술 학생(최우수)의 18명이 백일장에서, 그리고 반디유치원 박준희 어린이 외 30명이 사생대회 수상자로 선정돼 이날 상을 받았다. 황 군수는 "이 자리가 부모님의 존재를 귀히 여겨 마음을 헤아리고 은혜를 감사히 여겨 공경하는 계기가 되기를, 이 시간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힘을 돋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 真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RYEONG